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역자님들의 삶이 온전히 빛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저 역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텃밭 농사

계획은 계획일 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이 요즘입니다. S의 남동생 땅에서 협업을 약속했던 일꾼이 그만두어서 봄농사는 파종을 못하였고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N의 오빠 땅은 현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35 KM) 출입문 열쇠를 받아서 다녀오면서 고들빼기 잎도 채취하고 이번 주에 A가 기계로 땅을 기경할 예정인데,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얼갈이 배추를 심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싱가폴 사역자와의 협력은 조금씩 의견을 나누고 있고 고구마순을 활용하는 방안과 8월에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되지 않게 조금씩 노동을 하면서 시험 재배를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를 기도합니다.

1. 영혼들

 H부인은 시력이 약해지고 건강검진으로 봄을 보냈고 요즘은 외손녀가 신종 코로나와 바이러스에 감염하여 입원했고, F부인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뼈가 부러져 깁스를 했고, U부인은 다리가 붓고 눈도 아프다고 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영혼들이라 건강에 조금씩 무리가 있어 교제와 방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는 여전히 철학과 이론이 앞서 있지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이사 이후 이웃과 집수리 하면서 교제한 가정과 예전 교제한 영혼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있기를, 복음으로 교제하는 영혼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1. 여권 갱신과 거주 비자 신청

6개월은 금방 지나고 거주비자 신청할 시기(1개월 전)가 되었는데, 대사관에서 여권 사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갱신 신청하고 1개월이 다 되도록 발급받지 못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권이 만들어지면 자비로 특급우편(DHL)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래에 한국인 사역자 2 가정이 거주비자 신청이 거부되어 출국한 이후에 3개월 지나서 다시 신청하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이 나라 최저임금의 2배가 매월 달러로 입금되어야 6개월씩 연장되는데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기준에 미달되어 거주 비자 신청의 순적함과 담당자가 서류 통과에 호의적이고 발급받기를 기도하면서 동역자님들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동역자님들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어떤 요란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